

전체 ☁️

신선 ☀️☁️

가공 ☁️

수산 ☁️🌊



농수산물 수출

Zoom In 107호

I '윈터프린스' 싱가포르 최고급 소비자
입맛 사로잡아



II 수출담당 식물검역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III 「한국산 감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고시 제정 추진



농림수산물 수출은 18.4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

- 신선 2.4억불(1.0%↑), 가공 11.5(△1.5%), 수산 4.5(△8.4%) -

- `23년 2월 농림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1,836.6백만불
 - (신선) 채소류(60.0, 9.0↑), 닭고기(16.2, 36.2↑) 증가하였으며 과실류(60.1, △2.4), 김치(25.2, △1.9) 감소세 완화, 인삼류(26.4, △8.0) 감소세 지속
 - (가공) 라면(132.2, 19.8↑), 낙농품(33.8, 15.5↑), 과자류(99.9, 2.9↑) 증가하였으나, 음료(73.6, △6.4), 커피조제품(55.5, △6.6) 감소
 - (수산) 전복(8.1, 13.0), 굴(5.9, 6.9↑) 증가하였으나 명태(14.1, △57.0), 연어(8.3, △46.1) 감소, 김(110.3, △7.7)은 감소세 완화
- * 23년 2월(누계) 국가산업 전체 수출액은 12.0% 감소한 965억불

< `23년 2월(누계) 부류별 수출실적 >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2(연누계)		`22년 2월(A)		`23년 2월(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4,951.7	11,962.3	771.8	1,894.0	768.9	1,836.6	△0.4	△3.0
□ 농림축산식품	4,025.7	8,823.7	633.9	1,397.6	634.1	1,381.9	0.0	△1.1
○ 신 선	532.1	1,576.6	69.1	233.1	72.3	235.5	4.6	1.0
○ 가 공	3,493.6	7,247.1	564.9	1,164.4	561.8	1,146.4	△0.5	△1.5
□ 수 산 물	926.0	3,138.5	137.8	496.5	134.9	454.7	△2.1	△8.4

- CIS·몽골(67.5, 12.4%↑), 중국(324.1, 7.6↑), 일본(315.9, 6.2↑) 증가하였으나 미국(251.2, △15.7), EU·영국(109.9, △22.2) 감소, 아세안(386.2, △3.6) 감소세 완화
 - (중국) 인삼·라면·조제분유 등 신선과 가공을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 (일본) 신선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라면·전복 호조로 전체 증가세
 - (미국)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위축 영향은 여전하나 전월 대비 감소폭 축소
 - (아세안) 딸기, 닭고기 등 신선 호조에 힘입어 전월 대비 감소폭 축소
 - (유럽) 재고 누적과 유로존 소비침체가 지속되면서 전체 감소세 지속
 - (CIS) 물류 적체를 우려한 연초 재고 확보 영향으로 전체 증가세 지속

< `23년 2월(누계) 주요국 농림수산물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

국가	중화권	일본	미국	ASEAN			EU (영국포함)	CIS (몽골포함)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니				
`22(연누계)	3,129.3	2,160.7	1,632.6	2,431.8	879.5	443.6	318.3	755.5	396.5	241.7
`22년 2월(A)	442.5	297.5	298.0	400.5	128.9	77.6	54.5	141.2	60.1	38.0
`23년 2월(B)	473.6	315.9	251.2	386.2	126.4	89.5	47.7	109.9	67.5	42.9
증감률(B/A)	7.0	6.2	△15.7	△3.6	△2.0	15.3	△12.5	△22.2	12.4	12.8

농진청 이슈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싱가포르 최고급 소비자 입맛 사로잡아



농촌진흥청은 신품종 감귤 '윈터프린스'를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해 새로운 수출시장을 넓히고, 현지 최고급 시장에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는 2016년 제주 감귤연구소에서 선발한 품종이다. 특유의 달콤하고 청량한 맛, 부드러운 식감과 더불어 껍질이 쉽게 벗겨져 먹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당도는 12~13브릭스(°brix)로 높고, 산도는 1% 내외로 낮다. 항공수송으로 시범 수출한 '윈터프린스' 192상자(상자당 1.8kg)는 싱가포르 최고급 백화점 타카시마야, 최고급 온라인 쇼핑몰 쇼쿱케이에서 3일 만에 완판되며 성공을 거두었다. 싱가포르 현지 소비자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장성을 평가한 결과, 당도(92.9%), 과즙량(85.7%) 등 맛과 겉모양(78.6%)이 ' 좋음'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매우 높았다. 개선 의견을 반영해 한국감귤수출연합과 연계하여 중화권에서 선호하는 숫자 '8'을 연상시키는 상자당 8개 과일이 들어가는 고급 포장 상자를 개발 중이다. 또한 감귤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감귤수출연합 등과 협력해 수출용 포장 상자 개발, 시에이(CA) 저장기술 적용 선박 수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배와는 달라" 우리 품종 셋

농촌진흥청은 우리 배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가 좋아하는 특성을 고루 갖춘 우수 품종을 선정, 확대 보급에 나선다.



<설원>



<아람찬>



<만향>

'설원'(2010년 개발)은 이른 추석에 판매할 수 있는 조생 품종(9월 상순 수확, 나주 기준)으로 무게는 520g, 당도는 13.7브릭스(°Bx)이며 상온에서 3주간 유통할 수 있다. 과즙이 많고 과육이 아삭하며 단맛이 강해 남녀노소 모두 좋아한다. 껍질을 벗긴 뒤에도 속살의 흰색이 잘 유지돼 즈이나 조각 과일, 후식용 등 가공용으로도 알맞다.

'아람찬'(2015년 개발)은 9월 하순 수확(나주 기준)할 수 있는 중생 품종으로 무게는 600g, 당도 13.2브릭스(°Bx)이고 상온에서 3주간 유통할 수 있다. 적당히 새콤하면서 깊은 맛이 난다.

'만향'(2006년 개발)은 10월 중하순 수확(나주 기준)할 수 있는 만생 품종으로 무게는 560g, 당도는 14.0브릭스(°Bx)이며 상온에서 8주, 저온저장 했을 때는 7개월 이상 품질이 유지돼 수출에 알맞다. 갓 수확했을 때는 신맛이 많이 나지만 저장하며 산이 분해되면 단맛이 많아져 고유의 풍미가 살아난다.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3

수출담당 식물검역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검역본부는 '23.2.1~2.2. 양일간 부산에서 수출담당 식물검역관 65명을 대상으로 최신 검역 동향과 새로운 검역 요건을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담당 검역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검역본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에는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약 7,00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검역본부에서는 수출 농가들의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관원과 협의하여 상대국 수출 검역요건 뿐만 아니라 농약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국산 감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고시 제정 추진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2022년 한-뉴 양국이 한국산 감귤류에 대한 뉴질랜드 수출요건에 합의함에 따라 對 뉴질랜드 수출을 위해 「한국산 감귤류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수출 검역단지에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온주감귤,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 및 탄젤로류(감귤과 포멜로의 교잡종)가 수출 가능 품목에 해당되며, 연 2회 재배지 검역 및 선과 후 과실 표면살균 등의 검역 요건을 준수해야만 수출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고시 제정과 관련하여 행정예고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